

세상에서 하늘을 사는 성도

본문 : 창세기 23장 1-20절

* 쉬운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시작합니다.

- 1 사라는 백스물일곱 살까지 살았으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 2 사라는 가나안 땅 기럃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는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 3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곁에서 물러나와 헷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 4 "나는 이 곳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좀 파십시오."
- 5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 6 "내 주여, 우리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들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분을 장사지내십시오. 우리의 무덤 중에서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고르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장사지내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7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땅의 백성인 헷 사람들에게 절했습니다.
- 8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이 땅에 묻는 일을 정말로 도와 주시겠다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 9 에브론이 나에게 막벨라 동굴을 팔게 해 주십시오. 그 동굴은 에브론의 발 끝에 있습니다. 물론 값은 넉넉하게 치르겠습니다. 그 동굴이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속한 매장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 10 그 때에 에브론은 헷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이 성문 곁에서 헷 사람들이 다 들도록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 11 "내 주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동굴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드릴 테니 돌아가신 분을 장사지내십시오."
- 12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 앞에서 절했습니다.
- 13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 나를 위한다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발 값을 다 치르고 사게 해 주십시오. 내 돈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 죽은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 15 "그 땅을 값으로 치면 은 사백 세겔은 되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신 분을 장사지내십시오."
- 16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이 말한 은 사백 세겔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아 주었습니다.
- 17 이렇게 해서 마므레 동쪽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발이 팔렸습니다. 그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과 밭의 사방을 두르고 있는 모든 나무가

- 18 성문에 들어와 있던 헷 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19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동굴 속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인 마므레에서 가까운 막벨라 밭에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지금의 헤브론입니다.
 20 그리하여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은 헷 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속한 매장지로 바뀌어졌습니다.

**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보세요!

1.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를 떠난 사라가 127세에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왕들의 권세가 두려워 남편을 오라비라 속이기도 했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 자신의 몸종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2. 슬픔에 빠진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땅과 동굴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은 헷 사람들이 주인이었습니다.
3. 당시 헷¹⁾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과 소돔의 멸망 사건 등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스스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말합니다.
4. 땅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헷 사람들은 원하는 곳 어디든 무덤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에브론 소유의 막벨라 동굴을 사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에브론은 동굴을 그냥 주겠다고 하지만 다시 절하며 돈을 받으라고 부탁드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당시 땅의 가격대로 은 400세겔에 막벨라 굴과 사방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5. 계약은 당시의 법을 따라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막벨라 굴과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고향에 묻혀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6. 가나안은 이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떠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언약의 후손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확정했습니다.
7.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갔지만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매장지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 부모님과 함께 토론해보세요!

1. 아브라함은 왜 그냥 주겠다는 땅을 굳이 돈을 주고 구입하려 했을까요?

1) 고대 철기시대를 열었던 '히타이트'민족으로, 가나안의 후손입니다.(창10:15).